|  |
| --- |
| 내러티브 아크 기반 5단계 분할을 통한  《홍길동전》  텍스트 형태소 및 감정선 분석 |
|  |
| 금동환 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 e-mail: dhkeum9886@gmail.com |
|  |
| Morphological and Sentiment Analysis of  《The Story of Hong Gildong》  Text via a Five-Stage Narrative Arc Division |
|  |
| Donghwan Keum  Kookmin University |
|  |
| 요  약  《홍길동전》(경판 24장본) 원문[1]을 내러티브 아크의 5단계(탄생–고조–전환–하강–귀환)로 분할한 뒤, klt2023 형태소 분석기[2]로 추출한 명사에 *465-EmoNouns KcBERT* 감정 사전[3]을 매핑하여 단계별·전체 감정 분포를 정량화하였다. 총 151개 감정 명사 중 슬픔 39회(25.8 %), 분노 26회(17.2 %), 기쁨 17회(11.3 %)가 3대 정서를 형성했다. 슬픔·분노가 서사 전반의 축을 이루고, 기쁨은 초반에 소폭 출현했다가 전환기(의적 활동 시작)에서 급등 후 최종 귀환 단계에서 다시 감소하여 서사의 카타르시스 구조와 일치함을 보여준다. 이러한 계량 지표는 《홍길동전》의 정서 흐름을 시각화하며, 고전 서사 연구에 감정-언어 분석이 유효함을 입증한다. |
|  |

**1. 서론**

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영웅소설 《홍길동전》은 신분제 모순을 고발하고 의적의 영웅담을 제시한다. 기존 연구가 주로 주제·인물·신분제 담론에 집중했다면, 본 연구는 텍스트 내 감정선을 정량화해 서사 구조와 정서 변화를 연계한다. 내러티브 아크 모델은 고전 서사의 상승–위기–해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.

**2. 데이터 및 방법론**

연구 목적으로 경판 24장본 텍스트 전체를 UTF-8로 정규화하여, 내러티브 아크 기법을 기반으로 5단계(1. 발단 2. 상승 3. 위기 4. 절정 5.하강)로 전문을 분할한다

각 단계의 분할에 대해서는

1. 길동의 탄생과 신분에 대한 인식
2. 형제들 간의 불평등과, 관직 진출의 좌절
3. 공직 생활과 부조리한 명령
4. 출가 및 의적 집단 결정, 자신만의 정의 실현
5. 호국 활동. 관직 제수 후 귀환

의 5단계로 나눈 후 별도의 txt 파일로 분할하여 단계 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.

klt2023 분석기를 사용하여 단계 별 txt 파일의 명사를 추출하여 추출된 명사와 감정을 *465-EmoNouns\_KcBERT* 기반으로 정합되면 명사만을 1:1로 맵핑한다.

맵핑된 데이터를 collections 를 통해 정렬하여 matplotlib 을 이용해 시각화 한다.

표 1. 진행 절차 요약

|  |  |
| --- | --- |
| **절차** | **상세** |
| 데이터 준비 | 《홍길동전》(경판 24장본)를 ①탄생, ②고조, ③전환, ④하강, ⑤귀환 단계로 분할 |
| 형태소 분석 | Konlp.klt2023 분석기 사용. 명사만 추출. |
| 감정 맵핑 | *465-EmoNouns\_KcBERT* 사전의 8대 기본 감정(기쁨·슬픔·분노·사랑·놀람·불안·혐오·희망)에 정합되는 명사만 채택. 신뢰도는 고려 하지 않음. |
| 정량 지표 계산 | 단계별 감정 빈도, 전체 빈도 대비 상대비율을 데이터화.  Python + collections  + matplotlib  을 통해 수행 및 시각화 |

이상의 절차를 통해 단계별 감정선 데이터를 구축하고, 감정선 분석을 진행하였다.

**3. 내러티브 아크 단계별 감정 분석 결과**

**3.1. 1단계 : 탄생**

1단계에서는 총 13개의 감정 명사가 추출되었는데, 그중 8개(61.5 %)가 슬픔 범주에 속한다. ‘마음(6회)’과 ‘생각(2회)’이 슬픔을 대표하며, 출생 차별로 생긴 내적 고통이 서사의 주된 부분을 형성한다. 반면 기쁨은 ‘꿈’과 ‘흥’이 3회(23.1 %) 나타나 아직은 극의 분위기가 슬프고 분노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.

그림 1. 1단계 감정 분포 파이차트

텍스트, 스크린샷, 도표, 원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3.2. 2단계 : 고조**

2단계로 넘어가면 감정 명사 총수는 27개로 배 이상 늘어나고, 슬픔은 여전히 과반(14회 · 51.9 %)을 차지하지만 분노가 6회(22.2 %)로 급등한다. 상위 어휘 ‘한(4회)’과 ‘원망(2회)’이 초란의 모략과 자객 특재 사건을 인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소원·편안 같은 기쁨(3회 · 11.1 %)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슬픔이 전반을 차지하고 분노 정서의 비율이 점점 상승하며 극의 갈등이 점점 극대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그림 2. 2단계 감정 분포 파이차트

텍스트, 스크린샷, 도표, 원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3.3. 3단계 : 전환**

3단계은 감정 빈도가 단 4개로 급감한다. 슬픔·분노·혐오·사랑이 각 1회(25 %)만 출현한다.

이는 길동이 공직에 잠시 몸을 담거나 방황하는 구간으로, 사실상 정서적 공백이 형성된다.

그림3. 3단계 감정 분포 파이차트

텍스트, 스크린샷, 도표, 다채로움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3.4. 4단계 : 하강**

4단계에서는 분위기가 돌변한다. 감정 명사는 28개로 다시 치솟고, 분노는 11회(39.3 %)로 정점에 도달하며 탐관오리를 향한 길동의 감정이 명확히 드러난다. 동시에 기쁨이 8회(28.6 %)로 급등하는데, 이는 활빈당 활동의 성공과 백성 구휼이 가져온 카타르시스를 반영한다. 그러나 슬픔도 7회(25 %)로 여전히 높아, 영웅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개인적 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.

그림4. 4단계 감정 분포 파이차트

텍스트, 도표, 스크린샷, 원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3.5. 5단계 : 귀환**

5단계에 이르면 슬픔이 9회(40.9 %)로 다시 1위가 되고, 분노가 7회(31.8 %)로 뒤를 잇는다. 율도국 건국 이후에도 슬픔과 의분이 상당 부분 잔존한다. 기쁨(3회 · 13.6 %)과 사랑(2회 · 9.1 %)은 존재하지만, 길동의 정서적인 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.

그림5. 5단계 감정 분포 파이차트

텍스트, 스크린샷, 도표, 원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3.6. 해석**

정량지표로 분석한 정서의 흐름은 슬픔,분노,기쁨이 극의 서사에 따라 등장하며, 마지막 단계에서도 슬픔과 분노가 상당 부분 등장하며 길동의 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으로 남았음을 입증한다.

표2. 내러티브 단계 별 정량화 데이터

|  |  |
| --- | --- |
| 단계 | 데이터 |
|  |  |
|  |  |
|  |  |
|  |  |
|  |  |

**TBD**

**4. 통합 감정선 및 추세**

그림6에는 8대 감정의 단계별 비중을 한눈에 보여 주는 꺾은선이 제시되어 있다. 가장 많이 분포하는 슬픔,분노,기쁨 정서의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알 수 있다.

**4.1. 슬픔**

슬픔(파란 선)은 1단계 62 %에서 시작해 2단계 52 %로 완만히 감소하다가 3단계에서 25 %로 급락한다. 그러나 귀환기인 5단계에서 41 %로 다시 뛰어올라 \*‘시작-종결을 감싸는 기본 정조’\*임을 확인시킨다. 급락 지점(3단계)은 내적 한(恨)이 일시적으로 잠복한 구간이다

**4.2. 분노**

분노(빨강 선)는 정반대 궤적을 그린다. 1단계 8 %에 불과하던 값이 2단계 22 %로 두 배 이상 뛰고, 의적 전환 직후인 4단계에 39 %로 정점에 도달한다. 마지막 5단계에서도 32 %를 유지해, 카타르시스 이후에도 ‘잔여 의분’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.

**4.3. 기쁨**

기쁨(노란 선) 은 1단계 23 % → 2단계 11 % → 3단계 0 %로 미끄러지다가, 활빈당 활약이 시작되는 4단계에 29 %로 폭등한 뒤 5단계 14 %로 반감된다. 즉 의적 성공-보상 구간에서만 일시적 낙관이 분출된다

그림 6. 내러티브 아크 단계별 감정 변화

도표, 라인, 그래프, 텍스트이(가) 표시된 사진

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.

**5. 결론**

형태소 기반 감정어 분석은 고전소설의 **정서 지형**을 정량화해 내적 서사 구조를 재해석할 수 있게 한다. 《홍길동전》은 슬픔에 기반한 분노,기쁨의 정서로 영웅서사의 윤리적・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, 귀환 후에도 잔여 슬픔·분노가 남아 미완의 혁명담으로 독자를 소구한다.

**참고문헌**

[1] 홍길동전 (경판24장본)

(<http://www.davincimap.co.kr/davBase/Source/davSource.jsp?Job=Body&SourID=SOUR001001>)

[2] KoNLPy: Korean NLP Toolkit

(<https://konlp.readthedocs.io/en/latest/?badge=latest>)

[3] 강승식, “감정명사 465개, 심리동사 456개”

[4] The narrative arc: Revealing core narrative structures through text analysis

(<https://www.science.org/doi/full/10.1126/sciadv.aba2196>)